

연행시(燕行詩)의 양식적 특성에 대하여 - 여행 문학으로서의 연행시의 보편성과 특수성 -

안순태*

- I. 서론
- II. 연행시의 보편성
- III. 연행시의 특수성
- IV. 연행의 특수성과 연행시의 양식적 특성
- 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연행시(燕行詩)가 여행 문학으로서 국내 유람시·기행시와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 밝히고 그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연행시의 양식적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행시는 연행 과정에서 지은 시다. 연행도 일종의 여행이라는 점에서 연행시는 금강산 등 국내 유람 과정에서 지은 시와 표면적으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지 않기도 한다. 연행시와 기행시의 유사성에 대한 지적은 몇 차례 있었으나 본고를 통해 그 둘의 차이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같은 여행 문학이라는 점에서 어느 기행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들을 연행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정의 건문을 재현하거나 역사를 회고하고 동행과 수창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는 연행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행 문학 보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중국 문사와 수창하거나 중국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객수(客愁)를 서정적으로 읊조리는 등의 것은 어느 국내 유람시·기행시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연행시만의 특징이다.

*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부 조교수

국내 유람시·기행시와 여행시의 공통점과 차이점만 살핀다고 해서 여행시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하기 어렵다. 여행시는 그것을 이해하는데 있어 여행이라는 현실적·체험적 맥락, 즉 시가 지어진 상황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점에서 여행시는 서정적 성격이 강한 일반적 한시나 국내 유람시·기행시에 비해 교술적 성격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행시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작(詩作)의 상황, 즉 여행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시인의 현실적 경험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여행시, 여행록, 수창, 여행, 여행 문학, 유람, 기행(紀行), 갈래, 양식, 교술, 서정, 소세양(蘇世讓), 강준흠(姜浚欽)

1. 서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한다. 자신의 일상 공간을 떠나 낯선 풍경과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한편으로는 피곤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낯선 공간의 신선함은 여행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나 난관을 상쇄하고도 남을 여행의 동기를 개인에게 부여한다. 때로는 그 스트레스나 난관까지도 그 여행 체험을 기억하는 한 일상으로 돌아온 개인에게 영속적인 에너지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 체험을 길이 기억하고자, 혹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 고자 옛사람들은 여행을 하면서 글과 그림으로 자신이 지나는 길을 부지런히 기록하였다. 기록 매체가 지필묵에서 카메라 등 전자 매체로 바뀌었을 뿐 오늘날에도 여행 체험을 간직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는 줄어들지 않았다.

본고는 여행 문학으로서의 여행시(燕行詩)의 양식적 특성에 대해 살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행시는 여행록의 일종으로 우리나라 사행원이 북경에 다녀오는 과정에서 지은 시다.¹⁾ 그런데 여행시가 ‘사신으로서의 임무에 대

1) 여행시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서는 줄고, 「燕行詩에 대한 반성적 검토」, 『한국한시연구』 제 29호, 한국한시학회, 2021 참조.

한 자각'이 드러나지 않는 한 국내 기행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여느 유람시, 기행시와 흡사하다는 것은 이미 몇몇 연구자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²⁾ 연행시도 일종의 여행 문학이므로 과연 여느 국내 유람시나 기행시와 동일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일까, 여행 문학 가운데 연행시만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일까, 있다면 그 특수성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필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여행 문학으로서 연행시가 국내 유람시 내지 기행시와 같고 다른 점을 살펴 여행 문학으로서 연행시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 연행시가 '연행(燕行)'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어진 것이라는 점에 주안하여, 여행으로서의 연행의 어떠한 점 때문에 연행시가 그러한 면모를 보이게 되었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연행시'라 하면 조선 후기에 사행원으로 청조(淸朝)의 연경(燕京)에 다녀오는 과정에서 지은 시를 가리킨다. 본고에서도 주로 조선 후기 중국 사행시를 중심으로 살피겠거니와 일부 조선 전기의 중국 사행시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 또 여행 문학으로서의 연행시와 비교해 볼 만한 것으로 일본 사행시를 들 수 있는데, 일본 사행시까지 다루게 되면 논의가 방대해지고 자칫 논점이 흐려질 우려가 있어 본고에서는 연행시에만 한정하여 논의하려 한다.

연행도 일종의 특수한 형태의 여행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연행 과정에서 지은 시는 여느 유람시와 여행 문학으로서의 공통점을 보이는 요소가 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먼저 연행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행 문학으로서의 보편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II. 연행시의 보편성

일찍이 이혜순 교수는 '어느 한 나라의 사람이 자기 나라의 언어적 또는 정치적 국경선을 넘은 타국에서의 일시적 유람이나 거주를 통해 갖게 된 직접 체험의 문학적 표현'을 '여행자 문학'으로 정의한 바 있다.³⁾ 이 정의

2) 이군선, 「使行詩의 특징과 전개 양상」, 『동방한문학』 제42집, 동방한문학회, 2010, 1~2면; 윤재환, 「少陵 李尙毅 使行詩 研究」, 『동방한문학』 제45집, 동방한문학회, 2010.

에 의하면 근대 이전에는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강항(姜沆)이나 최부(崔溥), 문순득(文淳得) 등의 표류기,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 사행한 이들의 기록 정도가 여행자 문학에 해당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타국으로의 여행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상 공간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 방문하거나 일시적으로 거주하며 창작한 문학 전반을 여행 문학에 포함하고자 한다. 허균은 1601년(선조34) 조운(漕運)을 감독하는 전운판관(轉運判官)에 제수되어 서울에서 온양, 홍주, 보령, 부안 등지를 다녀오는 여정을 「조관기행(漕官紀行)」으로 기록하였다. 허균은 또 1606년(선조39) 원접사 유근(柳根)의 종사관으로 의주에 다녀오는 여정을 「병오기행(丙午紀行)」으로 남기기도 하였다.⁴⁾ 허균이 ‘조관기행’, ‘병오기행’이라 하여 국내 여행 기록을 ‘기행’이라 명명하였고 ‘기행’은 여행을 기록한다는 의미이니 국내를 여행하며 지은 시문(詩文) 또한 여행 문학에 포함하여야 마땅하다. 또 ‘여행자 문학’이라 할 때의 ‘여행자’는 여행 도중의 시문 창작 주체를 뜻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행에서 돌아와 여행에 대해 기술하기도 한다. 본고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여행을 대상으로 한 문학이라는 점에서 ‘여행자 문학’보다는 ‘여행 문학’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한다. 요컨대 본고에서는 자신의 일상 공간을 떠나 국내외의 타지를 다녀오며 지은 일체의 시문을 ‘여행 문학’으로 삼고자 한다.

여행, 특히 타국으로의 여행에서는 새로운 문물을 목도하며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여행 과정 내내 분주하기 십상이다. 오늘날 사진이나 동영상이라는 간편한 방식으로 여행 체험을 기록하는 것도 제법 신경이 쓰이는 일인데 하물며 붓으로 그 체험을 정리하고 감회를 덧붙이는 일은 오늘날의 방식과는 비할 수 없이 번거로운 것이다. 견문한 것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세세히 기록하는 데는 시보다 산문이 유리하다. 날마다의 일들을 일록 형식의 산문으로 기록한 것이 연행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연행시가 전하는 이유는 산문으로 기록할 수 없는 것을 시로 표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

3) 이혜순, 「여행자 문학론 試攷」, 『비교문학』 제24집, 한국비교문학회, 1999, 65면.

4) 『惺所覆瓿藁』 卷18에는 이 기록들과 함께 1602년(선조35) 원접사 이정귀의 종사관으로 국경 지역에 다녀와 정리한 「西行記」가 있으며 이들을 모아 「紀行」이라는 이름으로 편명을 삼았다.

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 개인적 감회를 서정적이고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데는 한시가 유리할 수 있다. 실제로 연암은 연행 과정의 기록 대부분을 산문으로 남겼지만 시로 표현하기에 적합한 순간에는 따로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⁵⁾ 산문기록 외에 따로 시를 지었다는 것은 산문보다 한시가 유리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다. 즉 연행 과정에서 한시(혹은 가사 등 국문시가)를 지었다는 것은 산문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개인의 감정이나 분위기를 함축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문과 시의 이러한 기능 차이로 인한 이유 외에 연행 과정에서 그렇게 시를 많이 지었던 데에는 현대인의 감각으로는 가늠하기 어려운 또 다른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시와 술, 거문고를 지나치게 좋아하여 삼혹호(三酷好)라 자호(自號)하고 여러 차례 자신의 시벽(詩癖)에 대해 언급하며 병중에도 시 짓기를 그만두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 글자 알아보기도 어려운 노년이 되어서도 입으로는 시 읊조리기를 그칠 줄 몰랐던 이규보를 비롯하여⁶⁾ 예로부터 시벽을 하소 연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퇴계 또한 시벽이 있어 새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거나 마음에 흥이 일면 시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한 시벽은 유람 도중이라 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평생토록 시를 잘 짓지도 못하면서 도리어 전부터 시 짓기를 좋아하였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마음에 흥이 일 때마다 시를 짓고 싶어 견딜 수 없어서 시 읊조리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미 지은 것을 남들은 보고 버리려 하는데도 나는 오히려 부끄러운 줄 모르니 이 때문에 남에게 비웃음을 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깊은 고질이 되어 치료할 수 없게 되었으니 가소롭다. 계사년 봄, 나는 남쪽으로 의령을 여행하고 그해 여름에 성균관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오가며 얻은 시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상자 속에 넣어 두고 와유(臥遊)하는 흥의 밑천으로 삼는다. 듣는 이들은 갓끈이 끊어지도록 웃을 것이고 보는

5) 김철조는 김창업을 예로 들면서 일기(산문)는 객관적 사실의 기록이자 공적 기록이며 한시는 개인적 정감의 기록이자 사적 기록이라 하여 산문과 한시의 용도를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김철조, 「박지원의 연행 한시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제63집, 한국한문학회, 2016, 284면 참조.

6) 이규보는 여러 차례 詩癖으로 인한 괴로움을 토로한 바 있다. <復自傷詩癖>, <又吟>(이상 『東國李相國集』 後集 卷8) 등의 시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손으로 입을 가릴 것이다. 가정 12년 7월 13일에 영지산인(靈芝山人)이 선보당(善補堂)에서 쓰다.⁷⁾

1533년 퇴계가 경상도 의령 등지를 여행하고 그 과정에서 지은 시들을 『남행록(南行錄)』과 『서행록(西行錄)』으로 묶어 낸 바 있다. 위 글은 두 기행 시집을 편찬하며 쓴 것이다.⁸⁾ 인용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퇴계에게 고치기 어려운 시벽(詩癖)이 있었다는 점, 다른 하나는 퇴계가 자신의 기행시들을 훗날 와유(臥遊)를 위해 정리해 두었다는 점이다. 습관적으로 시를 지었고 자신의 유람 체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기에 그가 기행시를 남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한편 김창흡(金昌翕)은 36세 되던 1688년 봄, 뱃길로 여주-충주-단양-제천-영월에 이르는 여행을 하고 그 기록을 「단구일기」로 남겼다. 당시 300여 수의 시를 지었다고 하는데, 「단구일기」에는 매일 어떤 형식의 시를 몇 수나 지었는지 기록하고 있다.⁹⁾ 유람 과정에서 김창흡은 매일 한두 수의 시를 지었는데, 어떤 날은 10수 이상 짓기도 하였다. 시 짓는 것이 습관이 된 이들은 유람 과정에서도 시 짓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또 17세기를 전후하여 산수 유람이 급증하고 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산수유기를 묶거나 자신의 기행 시문을 모으는 것이 유행하였다는 점도 기행시의 성행과 무관할 수 없다.¹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습관처럼 시를 쓰는 이들은 고단한 여정 가운데서도 시작(詩作)을 멈출 수 없었고, 연행 이후 그 체험(정서적 체험 포함)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회억(回憶)하기 위해 연행시를 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7) 李滉, 『退溪詩大全』, 권오봉 편, 여강출판사, 1992, 167면: “余平生不工詩, 顧嘗嗜之. 凡寓目興懷, 輒隨此技, 吟諷不絕於口. 既成人之見者, 或欲唾棄, 余猶不知愧, 以是得嗤笑於人非一, 而膏肓之癖, 迨不能藥, 直可笑也. 是歲癸巳春, 余南遊宜春, 其夏西入泮宮, 往返所得裒在一秩. 藏之篋中, 以資臥遊之興, 聞者當絕纒, 見者當掩口. 嘉靖十二年孟秋望前二日, 靈芝山人書于善補堂.”

8) 퇴계의 『남행록』 소재 시에 대해서는 조유영, 「『南行錄』 소재 퇴계 기행시의 특징과 의미」, 『동방학』 제32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5 참조.

9) 김창흡이 이때 지은 시에 대해서는 윤경희, 「김창흡의 단구일기 연구」, 『민족문화연구』 제41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4 참조.

10) 조선시대 와유 문화와 와유록에 대해서는 이종묵, 「조선시대 臥遊 文化 研究」, 『진단학보』 제98호, 진단학회, 2004를 참고할 수 있다.

연행시에 대한 그간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개별 연행시(연행록)를 관류하는 공통점 같은 것이 있다. 북경에 다녀오는 노정(路程)에서 견문한 중국의 풍물에 대해 읊기도 하고 유적지를 지나며 역사를 회고(懷古)하기도 하며 중국, 특히 청(淸)에 대한 인식을 표명하기도 하고 나그네로서의 고충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읊기도 하였다. 또 북경까지 오가며 동행한 이들, 그리고 중국 문사와 시로써 수창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연행시는 이러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 전문의 재현

국내든 국외든 기행시는 여행지에서 보고 들은 것을 주요 소재로 삼는다. ‘유람(遊覽)’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노닐며 관람한다는 뜻이니 여행 체험을 기록하는 기행시에는 경관 묘사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점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1688년 단양 일대를 유람한 삼연(三淵)이 남긴 다음 시는 여행 과정에서의 경관을 서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호(梨湖)로 노 저어 가니 사방 산이 나지막하고
 여주가 멀리 보이니 풀만 푸르게 우거졌네.
 파사성(婆娑城) 그림자는 청심루(淸心樓) 북쪽으로 기울고
 신록사 종소리는 백담 서쪽으로 퍼져나가네.
 적석(積石)에 부딪는 물결은 신마(神馬)의 자취를 침노하고
 이릉(二陵)에 봄이 드니 두견새 우는구나.
 박은과 이색의 시문도 부질없구나
 이처럼 좋은 풍광 함께하지 못하다니.

攄攄梨湖山四低	黃驪遠勢草萋萋
婆娑城影淸樓北	神輦鐘聲白塔西
積石波侵神馬迹	二陵春入子規啼
翠翁牧老空文藻	如此風光不共携 ¹¹⁾

봄날 배를 타고 여주로 가며 지은 시다. 여주가 가까워질수록 산이 나지

11) 金昌翁, <驪江>, 『三淵集』 卷4.

막해진다고 하여 수련(首聯)부터 역동성이 느껴지거니와 전체적으로 동적인 시작이다. 특히 함련에서 시각 이미지와 청각 이미지를 역동적으로 구사한 솜씨는 박인량의 <사송과사주구산사(使宋過泗州龜山寺)>의 함련 “탑 그림자는 강에 거꾸러져 물결 아래서 일렁이고 경쇠 소리는 달을 흔들어 구름 사이로 떨어지네[塔影倒江翻浪底, 磬聲搖月落雲間]”¹²⁾를 떠올리게 한다.

연행 과정에서는 참신한 볼것들이 국내보다 더 풍성하니 연행시 가운데 경관 묘사에 치중한 시가 풍성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가령 강준흠(姜浚欽, 1768~?)이 북경의 초입이라 할 수 있는 통주(通州)에 이르러 지은 다음 시는 통주의 당시 풍경을 잘 담아내고 있다.

수레 하나로 안개 낀 들숨을 헤쳐나가니
 통주 성곽 밖은 바다가 꼭 하늘 같네.
 나루 다리로 해 뜨자 온갖 배들 모여드는데
 모두 소주나 항주 만 리 가는 배들이지.
 一蓋行穿野樹煙 通州郭外水如天
 津橋日出千帆集 箇個蘓杭萬里船¹³⁾

바다와 하늘이 구분되지 않을 만큼 드넓은 통주 앞바다에 무수히 많은 배들이 몰려드는 광경을 담은 시다. 통주에 정박해 있는 크고 화려한 수많은 배들은 연행 과정에서 제일가는 장관(壯觀)으로 여겨졌다.¹⁴⁾ 연암도 통주에 정박해 있는 선박들을 보고 ‘배가 뺨뺨이 들어선 것이 만리장성의 웅장함에 견줄 만하다’고 한 바 있고,¹⁵⁾ 박사호는 10여 리나 늘어서 있는 화려한 선박들이 장관을 이루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고 기이하다고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¹⁶⁾

12) 朴寅亮, <使宋過泗州龜山寺>, 『東文選』 卷12.

13) 姜浚欽, <通州>, 『三溟詩集』 3.

14) 李海應, 『蘄山紀程』 卷4, 甲子(1804) 二月初四日條: “曾聞通州帆檣, 爲第一壯觀.”

15) 朴趾源, 『關內程史』, 『熱河日記』 八月初一日條: “至河邊, 河廣且清, 舟楫之盛, 可敵長城之雄.”

16) 朴思浩, 『心田稿』 卷2 “通州河中, 帆檣簇立, 可十餘里, 亦壯觀也. 其中江南樓船, 間間連舶, 望之如畫圖中, 東人初見, 莫不叫奇.”

이와 같이 기행시든 연행시든 새로운 풍광을 접하고 그것을 시 속에 담아내려 한 시도들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장면 묘사가 꼭 기행시, 연행시만의 특징이라 할 수는 없지만 낯선 풍광을 만나 느끼는 감회, 그것을 간직하여 공유하고 회억하고자 시에 그 풍광을 고스란히 담아 내려 하였던 것은 여행 문학으로서의 기행시나 연행시의 핵심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역사의 회고

여행 과정에서 유적지를 지날 때면 자연 그 유적지와 관련한 역사를 떠올리게 된다. 여행의 과정은 낯선 세계를 받아들이는 과정임과 동시에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고 기억을 소환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유람 과정에서 회고적인 시가 많이 제작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¹⁷⁾

국내 여행 도중에도 특정 역사나 인물의 이야기가 얹혀 있는 곳을 지날 때면 그를 회고하는 내용의 시를 남긴 이들이 많다. 가령 정약용은 <남이섬 아래 방아울[南怡苦下方阿兀]>이라는 시에서 남이섬 방아골을 두고 백제 온조왕이 낙랑국을 습격하려다 큰눈을 만나 회군했다는 역사 기록을 떠올린 시를 다음과 같이 남긴 바 있다.

남이섬 아래 방아울은
한문으로 번역하여 구곡(臼谷)이라 하였지.
아, 온조왕이 이곳에서 회군하였으니
큰눈이 하늘 가득 필필 날렸겠지.
南怡苦下方阿兀 譯以文之臼谷云
溫祚回軍噫此地 一天大雪想紛紛¹⁸⁾

다산이 1823년 여름에 춘천에 다녀올 때 남이섬 인근을 지나며 지은 시다.¹⁹⁾ 이 시의 주석에 “백제사(百濟史)에 이르기를, 온조왕 18년 11월에 왕

17) 가령 車佐一이 유람 도중 회고적 무상감을 읊은 것은 그의 유람시의 주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황진·박난야, 「四名子 車佐一의 遊覽詩 연구」, 『동양고전연구』 제80집, 동양고전학회, 2020, 212~216면 참조.

18) 丁若鏞, 『仙行日記』, 『茶山詩文集』 卷22.

이 낙랑의 우두산성(牛頭山城)을 습격하려고 구곡(臼谷)까지 왔다가 큰눈이 내리자 돌아갔다.”²⁰⁾라 하였다. ‘백제사’란 곧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가리킨다. 이 밖에도 특정 인물이나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있는 곳에 이르면 시인들은 어김없이 과거를 환기한다. 최치원이 노닐었다는 마산 월영대(月影臺)를 두고 서거정, 이황 등이 지은 시에서는 예외 없이 최치원을 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연행 노정에서도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있는 곳이나 유적지를 여러 곳 지나게 된다. 진시황 때 만리장성을 축조하는 데 동원되었던 남편 범칠랑(范七郎)이 죽자 아내 허맹강(許孟姜)이 그 시신을 찾아 성 밑까지 가서 울다 죽었다는 전설을 토대로 조성한 사당 강녀묘(姜女廟)라든지 사서(史書)로만 접하던 백이와 숙제의 사당 이제묘(夷齊廟), 송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문천상(文天祥) 사당, 문묘(文廟) 등 연행은 글로만 보고 상상하던 곳을 직접 답사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다. 이 때문에 각 유적지를 지날 때마다 그에 얹힌 역사를 회고하며 지은 시가 적지 않은 것이다.

3. 동행과의 수창

친구나 가족과 동행하는 국내 유람에서 동행과 시를 주고받는 일이 종종 있었다. 가령 이민구(李敏求, 1589~1670)가 금강산을 유람할 때 동행했던 허보(許畵, 1585~1659)가 단발령에도 도착하지 않아서는 대뜸 언제 서울로 돌아갈 것인가 묻자 이민구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써 허보를 놀린 일이 있다.

지팡이 짚고 갈바람에 한양을 떠나와
흰 구름 떠가는 신선 길이 아스라하네.
벼슬 버리고 한평생 머물 것도 아니지만
부끄럽도다, 명산을 앞두고 바쁘다고 하다니.
拄杖秋風別漢陽 白雲仙路間微茫

19) 이 시는 『汕行日記』(『茶山詩文集』 卷22)와 『穿牛紀行』(『茶山詩文集』 卷7) 두 곳에 실려 있다.

20) 丁若鏞, 『穿牛紀行』, 『茶山詩文集』 卷7: “百濟史云, 溫祚王十八年冬十一月, 王欲襲樂浪牛頭山城, 至臼谷遇大雪乃還.”

抽簪未擬終年住

羞對名山說着忙²¹⁾

<유선이 돌아갈 때를 말하는 것을 조롱하다[調惟善說歸期]>라는 제목의 시다. 유선은 곧 이민구의 벗 허보다. 애초에 이 유람에는 신익성, 이소한도 동행하려 하였으나 결행하지 못하고 이민구는 허보와 금강산을 찾았다. 비슷한 시기에 이민구의 종손자 이현석(李玄錫, 1647~1703)과 이현조(李玄祚, 1654~1710)도 금강산을 유람하였는데 며칠 간격을 두고 한 금강산 유람에 대해 서로 시를 주고받기도 하였다.²²⁾

1656년 사은사 부사로 연행한 김남중(金南重, 1596~1663)의 연행록에는 정사 인평대군, 서장관 정인경(鄭麟卿)의 시에 차운한 여러 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²³⁾ 정사와 서장관 이외에 동행한 이들의 시에 차운한 것도 상당히 많다. 스스로 감회를 읊은 시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수창을 위해 지은 시가 대부분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다. 이는 김남중 연행시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어느 연행록에서 흔히 볼 수 있을 만큼 보편적인 것이다. 1848년(헌종14) 동지사 서장관 윤철구(尹哲求)의 반당(伴黨)으로 연행한 이유준(李有駿)은 당시 반당들이 인삼 교역에 혈안이 되어 사행길이 모리매 싸움 터처럼 변해 버렸다고 탄식하면서 사행길을 오가는 가운데 시를 수창할 대상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였다.²⁴⁾ 이처럼 연행 과정에서 동행하는 이들과 수창하는 일은 흔한 것이었다.

1712년(숙종38) 동지사 겸 사은사로 연행한 백형 김창집(金昌集)을 따라 연경에 다녀오던 김창업(金昌業)은 돌아오는 길에 심양 인근에서 일행과 떨어져 천산(千山) 유람 계획을 세운다. 이에 김창집은 아우가 일행에서 떨어져 따로 유람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과 걱정을 표한 시를 써 준다. 그러자

21) 李敏求, <調惟善說歸期>, 『東州集』 卷6.

22) 오승준, 「東州 李敏求의 한시 연구」, 『한문학논집』 제41집, 근역한문학회, 2015, 124~125면 참조.

23) 이 시들은 金南重, 『野塘燕行錄』에 <次書狀韻>, <次書狀>, <次書狀遺懷>, <次書狀口號韻>, <次書狀至日韻>, <次書狀卽事韻>, <次書狀夜坐韻>, <次書狀志感>, <次呈上使>, <次正使> 등의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24) 李有駿, 『夢遊燕行錄』 上, 戊申(1848) 十二月五日條: “北京交通四國, 財貨咸聚. 譯員以下, 皆持蔘貨以交易爲主, 便作利窟. 故近年以來, 所謂伴僞, 每爲牟利輩爭窟. 三使族親士夫文學者, 罕得入來. 今行, 余亦無可與共唱者, 是一次事.”

김창업은 아래와 같은 시로 화답하여 백형을 안심시킨다.

만리 먼 길을 이미 왔는데
 며칠 떨어지는 것 무얼 그리 근심하시오.
 나란히 압록강 건너가리니
 길은 다르지만 마침내는 함께 가리다.
 已涉萬里遠 休嗟數日違
 聯翩渡鴨水 殊道竟同歸²⁵⁾

<기러기를 읊다[詠雁]>라는 제목의 시다. 형제가 나란히 귀국할 것이라고 형을 안심시키려는 아우의 의도가 제목에도 잘 드러나 있다. 동행한 이들과 서로의 소회를 주고받기 위해 수창시를 짓기도 했지만 연행시 가운데는 연행에 동행하지 않은 이들의 시에 차운하는 예도 적지 않았다. 두보 등 중국 시인의 시에 차운하기도 하고 선배 문인이 중국을 방문하여 지은 시에 차운하는 일도 많았다. 1682년(숙종8) 사은사 정사로 연행한 김석주(金錫胄)가 연경에 머물면서 <연경감회(燕京感懷)> 8수를 지은 적이 있다. 이후 1697년(숙종23) 주청사(奏請使)로 연행한 최석정(崔錫鼎)·최규서(崔奎瑞)·송상기(宋相琦), 그리고 1703년(숙종29)에 연공사(年貢使)로 연행한 서종태(徐宗泰)가 김석주의 <연경감회>에 차운한 것이 그 예다.²⁶⁾

이처럼 연행시에는 연행 과정에서의 지루함 때문에, 혹은 타국에서 느끼는 객수 때문에 동행한 이들과 수창하며 지은 시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또 옛사람이나 선배들의 시에 차운하는 일도 있었다. 이로써 연행시는 동시대적인 소통의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통시적으로 특정 장소를 공유하여 이전 사람들을 소환하거나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회억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장르이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25) 金昌業, <詠雁>, 『夢窩集』 卷3.

26) 이에 대해서는 이승용, 「晚靜堂 徐宗泰의 燕行詩 研究」, 『동방한문학』 제87집, 동방한학회, 2021, 247면 참조.

III. 연행시의 특수성

1. 중국 문사와의 수창

연행에 동행한 이들과 수창한 시도 많지만 북경까지 가는 연로(沿路)에서 만난 이들과 수창하기도 하고 북경에 이르러 만난 중국 문사와 수창하는 일도 흔하였다. 수창 대상 가운데는 지역 문사도 있었지만²⁷⁾ 대부분은 북경에서 만난 이들이었다.²⁸⁾ 홍대용과 엄성처럼 때로 북경에서의 만남이 귀국 후까지 이어져 천애지교(天涯之交)를 맺는 일도 있었지만, 대체로는 일회적인 만남에 그쳤다. 중국 인사와 수창한 시는 대부분 상대방의 인품과 시재(詩才)를 칭찬하거나 이별의 아쉬움과 그리움의 정서를 표출하는 시가 많다. 1818년 진하검동지사은사 정사 정만석(鄭晩錫)의 군관으로 연행한 성우증(成祐曾)이 도연명의 후손 도주(陶澍, 1778~1839)를 북경에서 만나 수창한 다음 시를 예로 들 수 있다.

만리 떨어진 고향 장사(長沙)에 대해 물으니
 동방의 선비와 책상을 마주한 때라네.
 가의는 풍운을 만나는 운명이 박하였고
 굴원은 빛나는 해와 달에 마음을 걸어두었지.
 시인은 천년 동안 봉부(鵬賦)를 읊고
 행인과 한몫이 되어 제주(祭酒)를 올리네.
 저소손(褚少孫)이 보충한 역사에도 소루함이 많으니
 누가 감굴밭 우물물의 향기로움을 알리오.

萬里長沙問故鄉	東方有士對書床
賈生薄命風雲會	屈子心懸日光
騷客千年吟鵬賦	行人一體奠椒漿
少孫補史多疎漏	誰識柑園井水香 ²⁹⁾

27) 가령 洪義浩는 沿路에서 豐潤縣 인사들과 교류하며 수창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김 동진, 「濟寧 洪義浩의 燕行錄 研究 (2) - 淸 文人과의 交遊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제42집, 영주어문학회, 2019 제3장 참조.

28) 남공철이 청의 문사 李林松, 褚裕仁 등과 수창한 시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줄고, 「남공철 연행시 연구」, 『한국한시연구』 제28호, 한국한시학회, 2020 참조.

29) 成祐曾, <贈陶給事雲汀澗>, 『茗山燕行錄』.

<급사 윤정 도주에게 드리다[贈陶給事雲汀澍]> 2수 중 둘째 수다. 장사(長沙)가 고향인 도주(陶澍)를 만나 장사 출신 가의와 굴원을 환기, 도주가 충절이 뛰어나다고 기리면서 그가 관운(官運)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이다. 불우하게 일찍 죽은 가의가 읊던 <봉부(鵬賦)>를 도주도 읊고, 굴원의 사당에 조선에서 온 선비와 함께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사마천의 『사기』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를 보충한 저소손(褚少孫)의 저작에도 여전히 빠진 게 있고 감굴이 많이 나는 곳에는 우물물도 향기로운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여 도주의 불운을 위로하고 세상에 쓰이지 못하는 그의 삶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이다.³⁰⁾

연행에 참여한 이들이 중국에 가서 교유한 인사들은 대체로 한직에 있거나 벼슬하지 못한 이들이었다. 그렇다 보니 위와 같이 상대방이 재주가 있음에도 쓰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의 시가 많다. 또 18, 19세기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대명의리의 관념을 고수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중국에 가더라도 시로써 수창하는 대상은 주로 명(明)의 후예인 한인(漢人)들이었다. 청조의 북경에서 중국 인사를 만날 때 굳이 만한(滿漢)을 차별하여 명의 유민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는 내용의 시를 쓰는 것이 조선 후기에 하나의 전형처럼 굳어졌다고 할 수 있다.

2. 중국에 대한 인식 표출

여행에 대한 기록은 여행지에서의 체험의 무차별적 기록이 아니라 여행자의 자기중심적 선택이 개재된 기록이라 하였다. 조선 후기 지식인들 상당수는 일본이나 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으며 그들의 여행 기록에도 그러한 편견이 드리워 있다.³¹⁾ 이른바 ‘대명의리’에 입각하여 명나라를 높이고 청나라를 낮추는 것은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보편적 태도였다. 실사 청나라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한 북학론자들도 대명의리를 부정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연행을 한 이들이 청을 어떻게 바라보았던가. 조선 후기 연행록에 드러난 ‘대청의식(對淸意識)’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30) 成祐曾이 陶澍와 주고받은 시에 대해서는 손혜리, 「19세기 전반 成祐曾과 淸 문사들의 교유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제3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335~339면 참조.

31) 이혜순, 앞의 논문, 71~72면.

축적되었다.³²⁾ 그간의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듯이 조선후기 문인들은 기본적으로 명을 부정하지 않는 선에서 청에 대한 태도를 다양하게 드러냈다. 청의 선진 문물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이들도 있었지만 대개는 그러한 문물에 관심을 두고 배우려 하기보다는 만주족은 투박하고 문명화되지 않은, 야만적이며 중국 역사를 더럽힌 이들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사행원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연행시에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가이다. 그 인식은 기본적으로 연행록 전반에서 나타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만주족=오랑캐’라는 관념 아래 그들의 문물을 무시하는 태도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 1803년에 연행한 이해응(李海應, 1775~1825)의 다음 시에서도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유리 감실에 금부처 비치고
 탑 잎과 병 속의 꽃이 그림 장식장에 벌여 있네.
 부질없이 불경 외며 만수를 빌지 말라
 중국에서 백 년 버틴 오랑캐 못 보았으니.
 琉璃龕映金軀 塔葉瓶花列畫廚
 莫謾諷經祈萬壽 中州未見百年胡³³⁾

이해응이 심양 인근의 절 만수사(萬壽寺)에 들러 지은 시다. 만수사는 강회 연간에 지은 절로 본래 이름은 ‘자혜사(慈惠寺)’였는데 매년 불경을 외우고 만수를 축원하면서 그 이름을 만수사로 고쳤다고 한다.³⁴⁾ 1, 2구에서는 만수사의 화려한 모습을 묘사하고 3, 4구에서는 만수를 비는 행위의 부질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백 년 버틴 오랑캐를 못 보았’다는

32) 조선 후기 연행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청의식’에 대해서는 유봉학, 「18·9세기 대명의리론과 대청의식의 추이」, 『한신논문집』 제5권, 한신대학교, 1988; 박기석, 「열하일기를 통해 본 연암의 대청의식과 <호질>의 주제」, 『국어교육』 제94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7; 박수밀, 「조선후기 대청 의식과 문화 수용 논리」, 『한국한문학연구』 제47집, 한국한문학회, 2011; 이상우, 「명청교체가 조선 지식인의 대청의식 일고찰」, 『온지논총』 제42집, 온지학회, 2015; 줄고, 「남공철의 연행 체험과 대청의식」, 『국문학연구』 제36호, 국문학회, 2017 등 참조.

33) 李海應, 『蔚山紀程』 卷2, 癸亥(1803) 正月初六日條.

34) 위의 글: “寺名本慈惠, 而每季諷經, 恭祝萬壽, 故改名萬壽寺, 康熙中所建也.”

표현은 청조(淸朝)에 대한 저주에 가까운 만큼 청(淸)에 대한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해응 외에도 수많은 인사들이 연행 과정에서 만주족과 청조를 부정적으로 그린 시를 지었다. 서종태(徐宗泰, 1652~1719)도 그 예다. 1703년(숙종29) 연행한 그는 식암 김석주의 「연경감회(燕京感懷)」에 차운하여 지은 시에서 “찬란한 황제 자리를 어찌 오래 차지하겠는가, 오랑캐 별 금세 떨어져 기어코 잊어지리라”[赫赫帝居寧久假, 旄頭倏落定摧顛]³⁵⁾라 하여 역시 청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격렬하게 드러낸 바 있다.

3. 객수의 서정

자신의 일상 공간을 떠나는 것은 설레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없을 수 없다. 조선 시대의 한시 가운데는 객지를 떠돌며 나그네의 시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읊은 시가 적지 않다. 그러한 시들은 대부분 일정한 거처 없이 객지를 전전하거나 유배 생활을 하거나 외지로 부임한 상황에서 지은 것들이다. 송몽인(宋夢寅, 1582~1612)이 타향에서의 고충을 읊은 <고산추사삼십오수(孤山秋思三十五首)>, 홍세태가 30대 초반 강원도 여행길에서 쓴 <우천(隅川)> 등의 시들에서 나그네의 시름이나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확인할 수 있다.³⁶⁾ 특히 홍세태는 <우천(隅川)> 도입부에서부터 “나그네 시름 말도 못하고 떠돌이 신세 몹시도 괴롭구나”[客愁不可道, 客遊何太苦]³⁷⁾라 하여 객지에서의 시름을 직접적으로 토로한 바 있다.

조선시대의 국내 유람지로 각광을 받던 곳은 금강산이나 지리산, 청량산 등지이다. 그중 가장 오래 걸리는 곳이 금강산이었는데, 대략 30일에서 40일 정도가 소요되었다.³⁸⁾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타지에서 지내니 응당 집(고향)이나 가족을 그리워하는 시를 많이 지었을 것 같지만 조선시대 국내 기행

35) 徐宗泰, 「夜坐亡聊次金息庵燕館感懷韻」 8首 中 第2首, 『晩靜堂集』 四.

36) 홍세태의 <隅川>에 대해서는 안대회,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출판, 1999, 126면 참조.

37) 洪世泰, <隅川>, 『柳下集』 卷1.

38) 정치영, 「遊山記로 본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여행」, 『경남문화연구』 제27집,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2006, 301면.

시·유람시에서는 의외로 객수를 읊은 시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유람 과정에서 한적함을 노래하고 여유가 깃든 시를 많이 지었던 것이다.³⁹⁾

그런 점에서 연행시는 여느 여행 문학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짙은 객수(客愁)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행선지가 고향(집)에서 먼 데다 낮은 산천과 사람들, 문물은 한편으로는 호기심을 자극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스레 자신이 살던 공간을 떠올리게 한다. 게다가 연행은 유유자적하는 유람과는 달리 정해진 일정이 있고 사행단의 무리에서 홀로 벗어날 수도 없다. 쉼 없이 목적지를 향해 이동해야 하는 여정 역시 여느 유람과는 달라 자연 육체의 피로도 쉽게 누적되고 거기에 낮은 환경으로 인한 긴장감이 더해져 고단함을 느끼기 십상이다. 그러한 상태에서 느끼는 객수를 이해웅은 다음 시에서 잘 표현하고 있다.

관산에 해 저무니 꿈마져 어슴푸레하여
 백 가지 감회를 시 한 수에 부치네.
 말 위에서 구름 다하는 곳 바라보고
 화룻가에서 달 밝을 때 무릎을 끌어 안네.
 사람은 부평초로 푸른 강을 떠도는 듯하고
 집은 연꽃 피는 옛 연못에 떨어져 있네.
 별판 달리느라 점점 수척해짐을 근심하였더니
 거울 속 내 모습에 깜짝 놀라네.

關山歲暮夢絲絲	百種襟懷寓一詩
馬上憑眸雲盡處	爐頭抱膝月明時
人如萍草滄江浪	家隔蓮花古洞池
原隰驅馳愁漸瘦	忽驚顏髮鏡中窺 ⁴⁰⁾

‘양수하점(亮水河店)에서 동관역(東關驛)의 운자를 거둬 쓰다’[亮水河店疊東關驛韻]라는 제목의 시다. 양수하는 산해관 직진의 지명이고 동관역은 이미 이해웅이 지나온 곳으로 양수하에서 60리 떨어진 곳이다. 이해웅은

39) 가령 車佐一의 유람시에서도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황진·박난야, 앞의 논문, 216~222면 참조.

40) 李海應, <亮水河店疊東關驛韻>, 『薊山紀程』 卷2.

동관역에서, 종사관 조지원(趙芝園)이 요동 별판을 두고 지은 시에 화답한 적이 있었다.⁴¹⁾ 그 시에서 쓴 평성 지운(支韻)을 사용하여 양수하에 도착해 지은 것이 위 시다.

동관역에서 조지원의 시에 차운할 때까지만 해도 이해응은 “장유하는 일에서부터 남아의 뜻대로니 넓은 하늘을 어찌 대롱 구멍으로 엿보랴”[壯遊自是桑蓬志, 天闊寧從小管窺]⁴²⁾라 하여 장유(壯遊)의 기쁨을 호기롭게 내세웠지만 양수하에 이르러 지은 시에서는 객수가 한껏 짙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동관역에서 조지원 시에 차운한 시와 위 시는 같은 날 지은 것인데, 아침에 지은 시와 저녁에 지은 시가 이렇게 거리가 멀다. 이해응은 연행 과정에서 종사관 조지원과 여러 차례 시를 주고받았는데, 연경 도착 후 세모를 맞이하여 조지원과 함께 읊은 다음 시에서도 이해응의 짙은 객수를 확인할 수 있다.

차 한 잔 들고 나자 촛불이 드리우니
 싸늘한 바람 부는 선달 그믐 밤이라네.
 나라 떠나 나그네 노릇 하기 참으로 어려운데
 어버이인들 떠난 자식 오죽 그리우실까.
 술동이 앞에서 억지로 마신 잔에 이내 눈물 섞이고
 붓 끝은 시름 달래느라 저절로 시가 쓰여지네.
 집집마다 우당탕 폭죽 소리 일어나니
 해 다 간 것 서러워 눈썹을 찡그리네.
 茶鍾呼罷燭花垂 溧溧寒風歲除時
 關塞誠難爲遠客 親堂何耐戀遊兒
 樽前強飲仍和淚 筆下裁愁偶有詩
 萬戶轟轟炮火起 却驚殘歲坐嚙眉⁴³⁾

이해응이 연경에 가 세모를 맞이하여 동행한 조지원과 함께 읊은 두 수 중 첫째 수이다. 위 시 바로 앞에 이해응은 “타국에서 송구영신(送舊迎新)

41) 그때 지은 시가 <東關驛和趙景裕>([『薊山紀程』 卷2)라는 제목으로 전한다.

42) 李海應, <東關驛和趙景裕>, 『薊山紀程』 卷2.

43) 李海應, <趙景裕芝園夜至共賦二首>, 『薊山紀程』 卷3.

하게 되니 고국 생각이 갑절이나 간절하다. 며칠 전부터 지포(紙砲) 소리는 곳곳에서 마치 우렛소리가 하늘을 울리듯 하였다.”라 적고 있다.⁴⁴⁾

동지사로 연행한 이들은 대부분 12월 중하순에 연경에 도착하여 연경에서 세모를 보내게 된다. 세모에서 연초에 이르는 동안 연경 곳곳에서는 지포(紙砲) 터뜨리는 소리가 그치지 않고 등희(燈戲)도 이어진다. 그런 흥겹고 어수선했던 분위기에 고국을 떠나 낯선 곳에 온 사행원들 중 상당수가 객수를 토로하곤 하였다. 박사호(朴思浩)도 객관의 등불이 쓸쓸히 깜빡이고 집과 고국은 아득하기만 하다고 하고 동행한 이들과 그날 다녀온 곳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밤새 귀가 다가올 정도의 지포(紙砲)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는 말로 한 해의 마지막 날을 기록한 바 있다.⁴⁵⁾ 어수선했던 지포 소리를 들으며 고향을 그리워하던 것은 고국을 떠난 이들이 북경에서 세모를 보내며 느끼던 공통의 정취였다.

물론 연행시에서만 객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배를 가거나 지방관으로 부임하여 지은 시 가운데도 객수를 읊은 것이 많다. 또 장기간 멀리 고국을 떠나 있었다는 점에서 통신사행의 시문에서도 객수와 관련한 언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여행 문학으로서 국내를 유람하며 지은 시문에서는 좀체 객수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객수를 토로하는 시를 많이 지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국내 기행시에서 보기 어려운 연행시의 특징적 면모라 할 수 있다.

IV. 연행의 특수성과 연행시의 양식적 특성

국내 기행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보편성, 그리고 국내 기행시에서 보기 어려운 연행시에서만 특수성을 파악했다고 해서 연행시의 성격을 온전히 밝혔다고 보기 어렵다. 연행시가 여느 서정적인 한시, 혹은 국내 유람시와는 다른 특수한 성격을 갖는 원인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

44) 위의 글: “殊邦餞送, 家國之戀倍切. 自數日紙砲之聲, 無處不起, 如雷轟天.”

45) 朴思浩, 『燕薊紀程』, 『心田稿』卷1, 戊子(1828)十二月三十日條: “是日, 除夕也. 旅燈耿耿, 家國杳漠, 與同行諸人, 討論懷抱, 各陳遊賞之奇, 四面但聞紙砲之聲, 終夜聒耳.”

행시가 지어지게 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여행시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러한 작시 상황의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여행시는 일반적인 여행이 아니라 특수한 여행인 여행 과정에서 창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1. 여행으로서의 여행의 특수성

여행시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도 상당히 다양하다. 여행 과정에서의 모든 것이 여행시의 소재가 되고 대개는 시를 읊을 당시 떠오르는 구절이나 원운(原韻)에 따라 형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여행은 여행 기간부터가 여느 유람과는 비교할 수 없이 길다. 조선 시대의 금강산 유람은 짧게는 보름에서 길게는 한 달 남짓 걸렸지만,⁴⁶⁾ 여행 기간은 다섯 달 내지 여섯 달이 걸렸다. 게다가 국내 유람은 가을과 같이 여행하기에 좋은 계절에 이루어지는 예가 많았지만 여행 중 가장 빈번하였던 동지사행은 한겨울인 10월 말 내지 11월에 출발해 겨울을 보내고 봄에 귀국하는 일정이었으므로 오가는 길에 고충이 적지 않았다. 금강산에 이르는 길이 멀고 험하기는 하였지만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친지의 집에서 묵는 예도 많았고 친구나 가족, 노복을 대동하였기 때문에 극심한 객수를 느끼지 않아도 되었다. 반면 여행은 처음부터 친한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는 일이 드물었고, 노숙을 해야 하는 상황도 빈번했으며 이러한 난관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동행과의 결속력이 강해져 같은 처지의 동행과의 정서적 유대감도 강했다. 무엇보다 국내 유람은 특별한 의무감 없이 자신의 여건에 맞게 일정과 노정을 조정할 수 있었던 반면 여행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동해야 했다. 특히 삼사(三使)는 사신의 임무도 지고 있어 국내 유람에 임하는 것과는 애초에 마음가짐부터 다를 수밖에 없었다.

여행은 넓은 세계를 직접 목도할 수 있는 벽찬 경험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일상 공간을 떠나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두려운 경험이기도 했다. 사내장부라면 응당 장쾌한 유람, 즉 여행을 경험해 보아야 한다는 말은 조선 후기에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 ‘장사라면 마땅히 한번 장쾌한 유람을 경험해야지’라고 호기롭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여행에 임하는 당사

46) 정치영, 앞의 논문, 301면.

자가 되어서는 다단한 걱정이 없을 수 없었다. 이유준(李有駿)도 연행을 위해 집을 나서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연행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던 심정을 내비치고 있다.

만리 먼 길 집 떠나는 나그네
 마음과 정신 상쾌할 뿐만이 아니지.
 사내장부로 어찌 집만 지키고 있으랴
 조카와 외숙이 또 한 수레를 탔도다.
 시와 술로 노닐기 좋은 곳
 산하의 장관이 시작되는 때라.
 고당(高堂)에 모친 계시니
 길 떠날 때엔 도리어 머뭇거리네.
 萬里辭家客 心神爽有餘
 丈夫寧守戶 甥舅且同車
 詩酒佳遊處 山河壯觀初
 高堂慈母在 臨路却躊躇⁴⁷⁾

이유준은 1848년에 외당질인 서장관 윤철구(尹哲求)의 반당으로 동지사 행에 참여했다. 그 때문에 함련에서 조카와 외숙이 같은 수레를 타고 출발한다고 하여 먼 여정의 출발이 설렌다고 하였다. 드넓은 장관을 보러 가는 길이라 호쾌하게 집을 나서려 하지만 미련에 이르러서는 연로한 모친으로 인해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고 하고 있다.

장유(壯遊)의 설렘이 두려움과 서글픔, 후회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압록강을 건너 국경을 넘어서면서부터 연행은 더 이상 설레는 유람이 아니며 눈앞의 지난한 현실로 다가왔다. 연암이 압록강을 건너며 묘사한 일행의 분위기는 그 점을 절묘하게 보여 준다.

멀리 앞 길을 바라보니 무더위가 사람을 찌는 듯하다. 돌이켜 고향을 생각하니 운산(雲山)이 아득하여 인정이 여기에 이르자 서글퍼서 되돌아갈 생각이 싹트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른바 평생의 장유(壯遊)라고 하여 특하면,

47) 李有駿, 『夢遊燕行錄』 上, 戊申(1848) 十月二十二日條.

“꼭 한번 구경해야지.”

라며 평소애 버려던 것도 이제는 실로 둘째에 속할 것이고, 그들의

“오늘에야 강을 건넌다.”

하면서 떠들어대는 것도 결코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다. 곧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일 뿐이다.

역관 김진하(金震夏)가 늙고 병이 위중하여 여기서 떨어져 되돌아가게 되어 정중하게 하직하니 서글픔을 금치 못하였다.⁴⁸⁾(강조-인용자)

압록강을 건너면서 드디어 중국에 들어선다고 즐거운 듯 말하지만 그 말은 실상 일종의 포기(포기)의 심정을 담은 말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행록에서 연행 출발 당시 집을 나서면서는 호쾌하게 장유의 기개를 뽐내지만 압록강을 건너가서는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는 시들을 볼 수 있다. 김정중(金正中)도 연행길에 나서며 동방의 한 선비로서 자신의 뱃속에 만 권의 책이 들어 있다 하고 식구들 걱정에도 얽매이지 않는다고 장담하며 장유의 포부를 내비쳤지만 막상 여행이 길어지자 권태를 느끼고 언제나 고국으로 돌아갈까 고향 생각이 간절하다고 하며 만리 먼 곳으로의 긴 여정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였다.⁴⁹⁾

2. 연행시의 교술적 성격

연행은 어느 유람과는 여러 모로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국내 산수를 유람하고 지은 기행시와 그 내질(內質)에 있어서도 여러 차이를 보인다. 가령 다음 소세양의 시에서는 연행이라는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팩트’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48) 朴趾源, 『渡江錄』, 『熱河日記』 六月二十四日條: “瞻前途, 溽暑蒸人. 回想家鄉, 雲山渺漠, 人情到此, 安得無無然退悔? 所謂平生壯遊, 恒言曰, 不可不一觀云者, 眞屬第二義, 其曰, 今日渡江云者, 非快暢得意之語, 乃無可奈何之意耳. 譯官金震夏, 以年老病重, 落後而去, 辭別鄭重, 不覺悵然.”

49) 金正中, 『奇遊錄』 壬子二月十五日條: “東方有一士, 頑樸可憎面. 腰佩刀一口, 腸貯書萬卷. 出門人不識, 頭白布衣賤. 平生壯遊心, 家累不係戀. (中略) 德勝門外路, 方知遊客倦. 書劍起束裝, 歸車向東轉. 往往阻風雪, 靡靡歷州縣. 大野何時盡, 故國幾日見. (中略) 客路方蔥蔥, 鄉愁正迢迢. 旅館明月在, 題詩夜□寥.”(강조-인용자)

행산(杏山)에서 흙먼지 무릅쓰고 새벽에 출발하니
 난데없는 거센 바람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네.
 말 위에서 우연히 설핏 잠이 드니
 고향 뜰 매화 버들은 꿈속에 봄이었지.
 杏山晨發冒黃塵 剗地顛風欲倒人
 馬上偶然成小睡 故園梅柳夢中春⁵⁰⁾

1533년(중종28) 겨울, 진하사(進賀使) 정사로 중국으로 떠난 소세양(蘇世讓)은 산해관에 못 미쳐 행산(杏山)에서 모래바람을 만난다. 사람을 넘어뜨릴 정도로 거세게 불어오는 흙먼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곤한 몸으로 말 위에서 설핏 잠이 들어 꿈속에서 고향의 풍경을 만난다. 여전히 봄은 오지 않고 모래바람이 불어대는 이국의 현실과 꿈속 고향의 봄소식이라는 환상을 대비하여 여로의 서글픔을 토로하고 있는 시다. 위 시는 북경에 사신으로 가는 시인의 신세를 고려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이다. 즉 한 시 중 상당수가 맥락의 고려 없이도 시 자체로 온전히 의미를 지니는 데 반해 연행시는 시를 지을 당시 상황과 전후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시는 작시(作詩)의 맥락, 즉 시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 시를 지었는가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가령 자신의 모든 것을 시로써 말하였다는 김시습의 다음 시도 그 예이다.

아이는 잠자리 잡고 노인은 울타리를 고치는데
 작은 시내 봄 물에는 물새가 먹을 감네.
 청산이 끊어진 곳 돌아갈 길은 먼데
 등나무 한 가지 꺾어 비스듬히 메고 가네.
 兒打蜻蜓翁掇籬 小溪春水浴鷗鷺
 青山斷處歸程遠 橫擔烏藤一介枝⁵¹⁾

초매(超邁)한 김시습의 시세계를 잘 보여주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50) 蘇世讓, <杏山途中>, 『陽谷集』 卷3.

51) 金時習, <陶店>, 『梅月堂集』 卷1.

<도점(陶店)>이다. 정겨운 시선으로 그려낸 봄 시골 풍경, 방랑길에 있는 시인의 여로(旅路)의 아득함을 잘 담아내고 있다. 그런데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안쪽(1, 2구)의 풍경이 시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서 마주한 것인지, 바깥쪽(3, 4구)에서 시인이 향해 가는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인지 문체 삼지 않는다. 이 시의 감상 포인트는 한가로운 시골 풍경과 아득한 방랑길의 시화(詩化)가 어떤 경지에까지 오를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한시 가운데는 맥락이 제거되고 시만 남은 예가 대부분이다. 이번에는 이와 다른 예를 보자.

사람 일엔 내 일찍이 서툴렀는데
천륜이라 그런지 네 생각이 또 나는구나.
대동강 뚝단배는 빨리 떠났건만
푸른 바다 소식은 더디 오는구나.
벽 더럽히던 글씨 어지럽기도 했지만
상 잡고 걸음마할 땐 기특도 했지.
나그네 잠자리라 꿈도 없는데
서울에서는 등잔을 사겠지.

人事曾吾濶	天倫亦爾思
涇江帆去疾	滄海雁來遲
澆壁書應亂	扶床步正奇
客牕無夢寐	京國買燈時 ⁵²⁾

집을 떠나 온 아버지가 어린 자식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시다. 한시는 제목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시는 강준흠이 1805년 정순왕후 승하를 알리기 위해 고부사(告訃使) 서장관으로 중국에 가는 길에 지은 것이다. 시 제목이 <양수하(兩水河)에서 나그넷길 밤에 심회를 쓰다[兩水河旅夜書懷]>이다. 이 제하에 강준흠은 임금과 부모, 그리고 자식을 대상으로 하여 세 수의 시를 적고 있으며 위 시는 그중 자식을 생각하며 지은 것이다.

앞의 김시습 시와 위 강준흠의 시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작시의 맥락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나 의미를 지니는가의 차이다. 김시습의 시

52) 姜淩欽, <兩水河旅夜書懷>, 『三溟詩集』 3.

에서는 작시 당시의 외부 상황이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데 반해 강준흠의 시는 그렇지 않다. 양수하(兩水河)는 산해관 인근으로, 시인은 이미 조선을 떠나 중국 깊숙이 들어가 있음을 보여 준다. 고국의 자취라곤 찾아볼 수 없는 객지에서 자식의 모습을 떠올리며 가족 소식을 궁금해 하고 있다. 전반부에서는 평양에서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소식이 빨리도 가는 듯하더니 중국 땅으로 건너온 뒤로는 집안 소식이 통 늦어지는 데 대한 답답함을 서술하고 있다면 후반부에서는 자식의 모습을 떠올리고 서울집을 생각하며 사행길의 고단함을 드러내고 있다. 사행길 여관에서 시인은 온종일 고단한 여정으로 인해 날만 저물면 꿈도 없이 잠드는데, 서울에선 이맘때쯤 밤을 밝힐 등잔을 살 것이라 한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시를 지은 곳이 중국 산해관 인근이고 시인은 고단한 사행길을 가는 중이라는 제목을 감안하지 않으면 이러한 해석은 하기 어렵다. 시 자체만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김시습 시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앞서 한 차례 다룬 강준흠의 <통주> 시는 김시습의 <도점>과 그 거리가 더 떨어진 예이다.

수레 하나로 안개 낀 들쭈를 헤쳐나가니
 통주 성곽 밖은 바다가 꼭 하늘 같네.
 나루 다리로 해 뜨자 온갖 배들 모여드는데
 모두 소주나 항주 만 리 가는 배들이지.⁵³⁾

강준흠은 통주에 이르러 그 장관을 목도하고 지나칠 수 없어 시를 남겼다. 시의 제목은 <통주>이고 시 내용은 당시 통주의 모습 그대로다. 김시습의 <도점>에서 도점이 어디에 있는 것이든 무방한 것과는 달리 강준흠이 위 시에서 구현한 풍경은 당시 중국 북경 인근의 통주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김시습 시와 강준흠 시의 차이는 곧 장르의 차이로도 이해할 수 있다. 즉 우리가 맥락과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시들 대부분은 서정성이 강하고 맥락을 고려하게 되는 시들은 교술성이 두드러지다는 것이다. 서정은 ‘작품외적

53) 姜浚欐, <通州>, 『三溟詩集』 3.

세계의 개입이 없는, 세계의 자아화'이고 교술은 '작품외적 세계의 개입이 있는, 자아의 세계화'이다.⁵⁴⁾ 작품외적 세계의 개입이 없다는 것은 작품 바깥의 세계, 즉 현실 세계의 인물, 사상(事象)이 작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현실 맥락에서의 의미를 탈각(脫殼)한다는 말이다. 작품 안에 있는 것들이 그것들대로 온전한 의미, 완결성을 갖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서정시는 김시습의 시처럼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그 시를 지었는가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그에 반해 대개의 교술시는 작품 밖 세계의 인물이나 사상이 그대로 작품 안으로 들어와 현실 맥락적 의미를 갖는다. <한림별곡>의 '元淳文 仁老詩 公老四六'이 그대로 당시 현실에서의 '유원순(兪元淳)의 문장, 이인로의 시, 이공로의 사륙문'을 가리키는 것처럼 말이다. 강준함의 <통주(通州)>에 구현된 통주는 현실 세계의 통주와 그곳의 모습이 시 안에 그대로 들어온 것이며 작품 안 사상(事象)이 곧 작품 밖 현실세계와 동질적인 의미를 띤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연행시는 연행의 전체 기록 안에 있을 때, 즉 연행의 맥락 속에 있을 때 온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연행록 중 일록(日錄) 가운데 있는 시라야 그 시가 온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설사 시만으로 구성된 연행록이라 하더라도 전후에 드러난 시를 통해 현실적·경험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으며 앞뒤의 시와 함께 있을 때 개개의 연행시작의 온전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연행록 가운데 시만 따로 빼내어 문집에 수록하는 것은 마치 유물을 본래 있던 자리에서 빼내어 박물관에 모아 전시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이상으로 여행 문학으로서의 연행시의 보편성, 그리고 연행시가 국내 기행시와는 다른 특수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행시는 대체로 견문 묘사, 역사의 회고, 객수(客愁)의 서정적 표출, 중국에 대한 인식 표백, 타인과의 수창 등을 그 일반적 특징으로 보여 준다. 이 가운데 견문 묘사나 역사의 회고, 타

54) 문학 갈래에 대해서는 조동일, 「문학의 갈래」, 『한국문학의 갈래 이론』, 집문당, 1992 참조.

인과의 수창은 국내 유람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여행 문학으로서의 보편적 특징이다. 그러나 연행시에는 국내 유람시·기행시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특수성도 있는데, 중국 인사와 수창한 것이라든가 중국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것, 객수(客愁)가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연행시의 특수한 면모는 연행이라는 맥락을 고려할 때 온전한 의미를 지닌다. 집을 떠나 멀리 다녀온다는 점에서 연행도 일종의 여행이기는 하지만 연행은 긴 여행 기간, 고정된 루트, 국내와는 다른 순탄치 않은 조건들 때문에 즐거움 이상으로 고충이 따르는 여행이다. 그 경험을 기억하기 위해 고단한 일정 가운데도 많은 사행원들이 연행록을 남겼다. 한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정적 한시가 작품 자체로서 온전한 의미를 지닌다면 연행시는 특수한 상황에서 창작된 것이어서 그 맥락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연행시에서 서정적인 면모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적 한시에 비해 교술적 성격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 『東文選』, 한국고전번역원.
姜浚欽, 『三溟詩集』, 한국고전번역원.
金南重, 『野塘燕行錄』, 임기중 편, 『燕行錄全集』 18, 동국대출판부, 2001.
金時習, 『梅月堂集』, 한국고전번역원.
金正中, 『奇遊錄』, 한국고전번역원.
金昌業, 『夢窩集』, 한국고전번역원.
金昌翁, 『三淵集』, 한국고전번역원.
南公輶, 『金陵集』, 한국고전번역원.
李有駿, 『夢遊燕行錄』, 한국고전번역원.
李滉, 『退溪詩大全』, 권오봉 편, 여강출판사, 1992
朴思浩, 『心田稿』, 한국고전번역원.
朴趾源, 『熱河日記』, 한국고전번역원.
徐宗泰, 『晚靜堂集』, 한국고전번역원.
成祐曾, 『茗山燕行錄』, 임기중 편, 『燕行錄全集』 69, 동국대출판부, 2001.
蘇世讓, 『陽谷集』, 한국고전번역원.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한국고전번역원.
李敏求, 『東州集』, 한국고전번역원.
李海應, 『薊山紀程』, 한국고전번역원.
丁若鏞, 『茶山詩文集』, 한국고전번역원.
許筠, 『惺所覆瓿藁』, 한국고전번역원.
洪世泰, 『柳下集』, 한국고전번역원.

2. 단행본

- 안대회,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출판, 1999.
조동일, 『한국문학의 갈래 이론』, 집문당, 1992.

3. 논문

- 김동건, 「澹寧 洪義浩의 燕行錄 研究 (2) - 淸 文人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제42집, 영주어문학회, 2019, 111~140면.
김철조, 「박지원의 연행 한시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제63집, 한국한문학회, 2016, 247~290면.

- 박기석, 「열하일기를 통해 본 연암의 대청의식과 <호질>의 주제」, 『국어교육』 제94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7, 325~348면.
- 박수밀, 「조선후기 대청 의식과 문화 수용 논리」, 『한국한문학연구』 제47집, 한국한문학회, 2011, 139~172면.
- 손혜리, 「19세기 전반 成祐曾과 淸 문사들의 교유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제3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327~360면.
- 안순태, 「남공철의 연행 체험과 대청의식」, 『국문학연구』 제36호, 국문학회, 2017, 203~232면.
- _____, 「남공철 연행시 연구」, 『한국한시연구』 제28호, 한국한시학회, 2020, 161~185면.
- _____, 「연행시에 대한 반성적 검토」, 『한국한시연구』 제29호, 한국한시학회, 2021, 131~155면.
- 오승준, 「東州 李敏求의 한시 연구」, 『한문학논집』 제41집, 근역한문학회, 2015, 115~142면.
- 유봉학, 「18·9세기 대명의리론과 대청의식의 추이」, 『한신논문집』 제5권, 한신대학교, 1988, 249~273면.
- 윤경희, 「김창흠의 단구일기 연구」, 『민족문화연구』 제41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4, 157~181면.
- 윤재환, 「少陵 李尙穀 使行詩 研究」, 『동방한문학』 제45집, 동방한문학회, 2010, 235~265면.
- 이군선, 「使行詩의 특징과 전개 양상」, 『동방한문학』 제42집, 동방한문학회, 2010, 31~50면.
- 이상우, 「명청교체기 조선 지식인의 대청의식 일고찰」, 『온지논총』 제42집, 온지학회, 2015, 107~138면.
- 이승용, 「晩靜堂 徐宗泰의 燕行詩 研究」, 『동방한문학』 제87집, 동방한문학회, 2021, 223~253면.
- 이종묵, 「조선시대 臥遊 文化 研究」, 『진단학보』 제98호, 진단학회, 2004, 81~106면.
- 이혜순, 「여행자 문학론 試攷」, 『비교문학』 제24집, 한국비교문학학회, 1999, 63~92면.
- 이황진 · 박난아, 「四名子 車佐一の 遊覽詩 연구」, 『동양고전연구』 제80집, 동양고전학회, 2020, 195~227면.
- 정치영, 「遊山記로 본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여행」, 『경남문화연구』 제27집,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2006, 291~306면.
- 조유영, 「『南行錄』 소재 퇴계 기행시의 특징과 의미」, 『동방학』 제32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5, 185~217면.

A Study on the Stylistic Characteristics of Yeonhaengshi(燕行詩)

-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of Yeonhaengshi as travel literature -

An, Soon-ta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how Yeonhaengshi, poetry written by people who visited Beijing as envoys during the Joseon Dynasty differs from general domestic travel poetry. Yeonhaengshi is a kind of travel literature written during the course of their envoy to Beijing. So it looks similar to poems written on the way to a domestic tourist destination such as Mt. Geumgang. There are several studies on this issue, but there has been no result of studying the problem in earnest.

Yeonhaengshi is a kind of travel literature. So, in Yeonhaengshi, we can check the characteristics that can be confirmed in other travel poetry. These are poems that describe what they saw, poems about history, and poems exchanged with those who accompanied them. It could be said to be a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al travel literature that can be confirmed in Yeonhaengshi. On the other hand, exchanges with Chinese writers, describing of Qing Dynasty, and lyrical recitations of the troubles of a traveller can be said to be unique characteristics of Yeonhaengshi that is difficult to find in other domestic travel poetry.

In order to properly understand Yeonhaengshi, the realistic and experiential context of visiting Beijing, that is, the situation in which the poem was written, is a very important thing.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Yeonhaengshi have didactic style compared to general Korean poetry including domestic travel poetry.

keywords: Yeonhaengshi, Yeonhaengnok, Suchang, travel, travel literature,
sightseeing, journey, genre, didactic style, lyric style, So Se-yang, Kang
Jun-heum

접수일자: 2021. 9. 30.
심사기간: 2021. 10. 1.~2021. 11. 10.
게재결정: 2021. 11. 10.